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08년 11월 24일(월)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인권의 현재와 미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단과 함께하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여성인권 국제포럼」 개최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주 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포 날짜 : 2008년 11월 24일(월)

언론 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 애 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info@kwdimail.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 www.kwdi.re.kr)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2008년 11월 27일 목요일 외교통상부 본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단을 초청하여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여성인권」을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여성인권」 국제포럼 개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08년 11월 27일(목) 14:30 - 17:30○ 장소 : 외교통상부 본관 3층 국제회의실○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국가인권위원회○ 후원 : 외교통상부 · 여성부 |
|--|

□ 초청자 미디어 취재 지원

- 이번 포럼은 유엔여성차별철폐 위원이 함께 하는 자리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이번 포럼 초청자들과의 공동인터뷰를 포럼 다음날인 **11월 28일** 금요일에 오전 11시부터 약 한 시간동안 진행할 예정임.
- 이번 포럼과 관련하여, 초청자들과의 인터뷰를 원하시는 매체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 홍보담당 황애리에게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 황애리(3156-7296)

□ 국제포럼 개요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 www.kwdi.re.kr)은 2008년 11월 27일 목요일 외교통상부 본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여성인권」을 주제로 하는 국제포럼을 개최함.
- 이번 국제포럼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외교통상부와 여성부의 후원 하에 이루어짐. 당일 포럼에서는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와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 신동익 외교통상부 국제기구정책관의 축사가 있음.
- 본 포럼에서는 CEDAW위원단의 주제발표가 있음.
 - CEDAW 협약과 국가의 책임(베아테 슝 쉴링, 독일),

CEDAW 위원회의 대한민국 심의 권고(도르카스 코커 아피아, 가나), CEDAW 협약 선택의정서와 개인진정(프라밀라 패튼, 모리셔스), CEDAW 협약 선택의정서와 직권조사(레지나 타바레스 다 실바, 포르투갈), CEDAW 협약과 NGO 모니터링(신혜수, 한국)

- 또한 패널 발표 후, 변화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연구실장, 이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정책본부장, 김선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조영숙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소장의 지정토론이 예정되어 있음.

□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적 환기 기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번 국제포럼 및 CEDAW 현직 위원단들의 방문을 통해 여성인권의 주요의제에 대한 경험과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국제적 여성인권 기준에 비추어 한국의 여성인권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고자 함.
- CEDAW 위원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을 국내에 널리 알림과 동시에, 국제 여성인권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하고 여성인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대하여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은 1979년 채택되었으며, 2008년 현재 전 세계 185개국이 비

준한 국제협약으로, 여성의 인권 보장과 차별 해소에 대한 국가적 의무를 명시한 여성의 권리장전으로 불리는 인권협약임.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은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영역에까지 성평등을 실현하게 함으로써 명목적 법과 실제 관행간이 격차를 좁히기 위한 국가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촉진하게 하였으며, 국내법의 제·개정과 함께 우리 사회 각 부문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
- 유엔은 1999년 권리침해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집단이 동 위원회에 직접 구제요청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의정서를 채택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여성인권 보호 장치를 한층 더 강화함.
- 우리나라는 여성정책 및 여성인권 개선에서 큰 진전을 보이는 모범국가라는 국제사회의 전반적 평가 속에 특히, 호주제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여성정책 추진체계 강화와 예산 증가, 성매매 관련 특별 법 제정과 시행, 다양한 잠정적 특별조치를 높이 평가받은 바 있음.
- 또한 우리나라는 또한 2006년 10월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통하여 권리침해를 당한 개인이나 집단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직접 구제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협약의 목적과 제 규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대하여

-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의 이행 모니터 기구로 23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음.
-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가입국으로부터 여성인권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매 4년마다 제출받아 심의하여 권고함.
- 그리고 협약에 보장된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개인들이나 집단으로부터 진정을 받아 조사하여 심의를 하거나 심각한 침해가 있을 경우 직권으로 조사를 하기도 함.

* 별첨 1. CEDAW 위원 약력

별첨 2. 발표자료 초록

별첨 3. 행사일정

별첨 1. CEDAW 위원 약력

좌장 : 신혜수 UN CEDAW 위원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간사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대표
-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건립위원회 상임공동추진위원장
- 생태나라운동 집행위원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 Dr. Hanna Beate Schoepp-Schilling (독일)



-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 전. 독일정부 여성가족청소년부 국장
- 미국학 박사
- 독일인권연구소 이사
- 일본 교토대학 교환교수
- 독일 Bochum 대학교 강의

| Ms. Dorcas Coker-Appiah(가나)



-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 변호사, NGO운동
- 여성폭력관련 변호사
- 여성인권증진, 보호와 관련된 비영리단체 활동
- 성별과 인권문제에 관련된 단체 근무이사

Pramila Patten (모리셔스)



- 2003~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 선택의정서 워킹그룹 위원
- 감비아 내 민주주의와 인권분야 아프리카 센터 부회장
- 인권 변호사 활동 및 법무부 자문위원

Regina Tavares da Silva (포르투갈)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2000~현)
- 수년 간 포르투갈,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강의
- 전 회장 (여성인권, 성 평등화를 위한 포르투갈 정부산하기관)
- 남녀 평등을 위한 유럽위원회 회장
- 정책결정에 있어 남녀 동등한 기회를 위한 위원회 회장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내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임시 자문위원 외 다수의 여성학 관련 활동
- 1995년 대통령상 표창

별첨 2. 발표자료 초록

< CEDAW 위원 발표자료 국문초록 >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국가의 책임

베아테 슈 쉐링 (Ms. Hanna Beate Schöpp-Schilling)

여성차별철폐협약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에서는 여성들을 성별을 근거로 차별하지 않고 여성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옹호하도록 당사국들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당사국들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인권을 인정받고 행사하고 향유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협약에 참여하게 되면, 당사국은 독립적인 멤버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협약이행사항을 제출함으로써 주권의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 위원회에 의한 상세조사는 보고 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협약의 선택의정서 (The Optional Protocol)에서는 여성 개인 또는 여러 여성 집단에 대해 협약 상 인권 침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이에 대해 커뮤니케이션 절차를 허용한다. 위원회에서는 또한 당사국에서 심대하거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여성인권 침해에 관련하여 신뢰할만한 정보를 근거로 조사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당사국들은 자국민 중 여성인구에 대해 지체 없이 협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개인, 기업, 공공부문의 조직, 가족의 사적인 영역 뿐 아니라 정부당국의 차별적인 행동 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행태에 관련해서도 책임을 진다. 당사국들은 여성을 직, 간접적으로 차별하는 법과 규정을 철폐해야 하며 여성들을 위한 보호법을 채택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양성 평등의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임시 특별 조치를 허용하는 법적 조치 또는 규정이 포함된다. 또한 당사국들은 여성들의 삶의 물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사국들은 여성과 남성이 속성상 열등하거나 우월하다고 규정짓는 문화적 편견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편견은 태도, 행동, 제도 등에서 드러나며 바뀌어야 한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권고

도르카스 코커 아피아 (Ms. Dorcas Coker-Appiah)

도입

대한민국은 1983년 여성 차별 철폐 협약을 비준했다.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는, 협약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당사국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본 섹션에서는 위원회가 수행한 업무와 보고서 검토 후 내놓은 권고안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이후 섹션에서는 위원회가 20년간 이러한 사안들을 어떻게 다루어왔는가와 위원회의 코멘트가 대한민국의 협약이행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도록 한다.

여성정책기구

본 섹션에서는 오늘날 정부부처로 진화한 여성정책기구의 발전상을 살펴본다.

유보

협약 비준 당시 대한민국은, 가족생활의 중요한 영역에 있어서 여성의 평등권과 연관되는, 매우 중요한 조항인 9조와 16조를 유보한 바 있다. 본 섹션에서는 위원회가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본다.

폭력

대 여성폭력은, 협약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1987년과 1992년에 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 일반권고안 (General Recommendations)에 의해 각 당사국이 다루어야 할 사안이 되었다.

결론

결론 부분에서는 상기의 세 가지 사안으로부터 나온 내용과, 위원회가 수년간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인권을 어떻게 개선해왔는가를 다루게 된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와 개인진정

프라밀라 패튼 (Ms. Pramila Patten)

기존 인권 조약 및 절차가 성차별적 인권침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개선하고 여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존 UN 인권기구의 강화를 촉구했던 1990년대 초반 국제 여권 운동의 활동은, 1993년 비엔나 총회에서 기존 국제 인권 법과 이행 메커니즘 속에 여성의 인권이 제대로 고려되어 있지 않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게 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의 선택의정서는 1999년 UN 총회 때 채택되었고 2000년 12월 22일에 발효되었는데 여성 인권의 보호 및 촉진에 있어 괄목할만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최초의 성차별에 근거한 진정절차였다. 선택의정서는 여성들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협약 상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의 구제 수단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택의정서는 협약을 전 세계 각지에서 여성들이 매일 실제로 맞닥뜨리는 상황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협약은 더 이상 단순히 멀리 있는 추상적인 규정과 원칙이 아닌 것이 되었다.

선택의정서에는 두 개의 절차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이나 집단이 협약 상 규정된 권리의 침해를 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 절차이며 또 하나는 위원회가 협약 상 규정된 권리의 심대한 또는 체계적인 침해 상황을 조사하는 조사절차이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선택의정서에서는 성별을 이유로 자행되는 차별문제를 다루기 위한 절차를 제공한다.

여성이나 여아가 인권을 완전하게 향유하고 고충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환경은 국가적 차원의 조치를 통해 창출되므로, 진정처리 메커니즘이 여성의 평등권 확보에 효과적인 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여성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성들은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국제 인권 수단에 더욱 의존해야 한다. 권리에 대한 인식은 국제 인권 전문가들뿐 아니라 각국의 일반 여성들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인권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해야 한다. 주요한 틀로써의 선택의정서는 최초 구상했을 때처럼 앞으로도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와 직권조사 절차**레지나 타바레스 다 실바 (Ms. Regina Tavares da Silva)**

본고는 선택의정서의 제2차 구제신청, 특정 성격과 과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직권조사 절차와 각기 다른 조치에 대해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발의를 위한 요건은 동위원회가 지금까지 수행해온 첫 번째 직권조사의 관점에서 지적될 것이다.

이 직권조사는 선택의정서 제 8조의 요건에 부합하는 정보를 위원회가 접수한 후 2003-2004년 간 일어났던 것이다. 이는 차별철폐협약에 명시된 권리의 심각한 혹은 체계적인 침해를 나타내는 신뢰할 만한 정보이다. 그러한 정보는 멕시코, 미국의 국경지역의 즉 치후아후아주의 시우다드후아레스 지역의 젊은 여성들의 실종, 살해와 관련되었다.

대외비밀로서, 위원회와 국가 간의 상호활동을 요구하는 직권조사 후, 직권조사결과와 당사국에 대한 권고가 발표되고 2005년 초에 공개되었다.

긴급사태와 시의적절한 대응을 요하는 특정상황을 제기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유익한 수단으로서, 후속조치의 가능성과 이러한 절차의 특정한 가치와 이해가 또한 지적이 될 것이다.

CEDAW와 NGO 모니터링

신혜수(CEDAW위원회 위원, 대한민국)

CEDAW협약의 이행은 정부의 책임이고, 협약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정부지만, NGO의 활동은 동 협약의 충실한 이행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법과 제도, 정책, 프로그램등이 실제 여성의 삶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NGO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CEDAW위원회는 처음부터 NGO의 참여를 허용하였고, 특히 협약 이행의 심의에 있어서 NGO 활동의 중요성과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협약 이행에 대한 NGO의 모니터링 활동은 크게 5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는 정부보고서 작성과정이다. 각국 정부는 협약이행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 초안에 대해 NGO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다. 둘째는 NGO자체의 보고서제출이다. 정부보고서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보다 현장밀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NGO보고서는 협약 전체를 다 다루어도 되고, 몇 개의 조항, 또는 한 조항만 다루어도 된다. 또한 여성 차별적인 법, 가정폭력, 여성의 정치참여 등 특정 주제에 관한 것이어도 좋다. 그리고 국내NGO가 다른 나라의 심의 시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셋째는 CEDAW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위원회의 pre-session working group의 질문지 작성과정과 정규 회의의 심의 시에 참여하여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넷째는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국가의 피해자를 지원해서 진정을 제출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고, 심각하거나 조직적인 침해의 경우 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협약과 선택의정서의 내용을 여성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 교육하고 정부의 협약이행을 촉구하는 모니터링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NGO의 중요한 활동이다.

별첨 3. 행사일정

14:30-15:00 등 록

15:00-15:10 개회식

사 회: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개회사: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환영사: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축 사: 신동익 외교통상부 국제기구정책관

15:10-16:30 패널 발표

사 회 : 신혜수 CEDAW 위원

- CEDAW 협약과 국가의 책임
베아테 슝 쉐링 (Ms. Hanna Beate Schöpp-Schilling, 독일)
- CEDAW 위원회의 대한민국 심의 권고
도르카스 코커 아피아 (Ms. Dorcas Coker-Appiah, 가나)
- CEDAW 협약 선택의정서와 개인진정
프라밀라 패튼 (Ms. Pramila Patten, 모리셔스)
- CEDAW 협약 선택의정서와 직권조사
레지나 타바레스 다 실바 (Ms. Regina Tavares da Silva, 포르투갈)
- CEDAW 협약과 NGO 모니터링
신혜수, 한국

16:30-17:00 지정토론

- CEDAW 협약이 한국의 여성정책에 미친 영향과 함의
변화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연구실장
- CEDAW 협약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이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정책본부장
- 한국에서의 CEDAW 이행 평가
김선욱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CEDAW와 한국의 여성운동
조영숙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소장

17:00-17:20 종합토론

17:20-17:30 폐 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 www.kwdi.re.kr)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도자료 끝.